



어촌·어항·어장은 관광상품이다

○ 는 5월31일은 제9회 바다의 날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바다의 날 행사를 '어촌과 관광'이라는 주제로 31일 대전해수욕장에서 개최하며, 이에 앞서 29, 30일 양일간은 '아름다운 어촌 방문하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도시민들에게 갯벌 체험과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어촌관광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갯벌체험하기 △유람선 승선 관광 △바다사랑 음악회 △모래조각전 △해상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말한다. 제조업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이윤을 올릴 수 있는데 비하여 관광산업은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을 적절히 이용하여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3면이 바다인데다 변화무쌍한 해안선, 수많은 아름다운 섬들, 게다가 어촌 특유의 풍속과 풍광 등 모두가 한결같이 훌륭한 관광 상품이다. 어업외의 다양한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좋은 어촌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우리 어촌 어업인의 생활상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촌관광지화가 어촌소득증대와 현실적 연관성을 갖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촌관광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특정 항목을 강조하는 시스템이 아닌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어업인에게는 소득증대를, 어촌에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쌍끌이식 어촌관광지화 개념을 이번 기회에 재정립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은 불문가지다. 현재 진행중인 어촌어항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 어촌어항개발사업이 통합 추진되어야 하며,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다기능종합어항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 또한 어느 곳을 가나 어촌·어항·어장이 비슷비슷하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역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어촌관광지화를 추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어촌을 관광지화 한답시고 이벤트 또는 먹거리 위주의 일시적이고 즉흥적이며 전시위주의 어촌관광지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이는 자칫 숙박업 요식업 위주의 관광과 지역 난개발을 자초할 우려가 있으며, 정작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향상과는 무관한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은 어촌 관광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다양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며 어촌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이 절실히 요청된다. 무엇보다 어업인 스스로가 어촌 관광에 대한 혁명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대대로 이어온 생산위주의 수산업에 대한 고착된 의식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이 같은 부단한 노력의 끝에는 분명 충분한 결실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한국어항협회 역시 가장 공들여 온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이번 제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온 국민이 무심코 지나쳤던 마음의 고향 바다를 새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어촌어항소식)

